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	
	보도	배포 시	배포	2020.09.25.(금)	
책 임 자	금융위 가계금융과장 이 수 영(02-2100-2510)		담 당 자	김 기 태 사무관 (02-2100-2523)	
	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 채 석(051-663-8471)			이 기 태 팀 장 (051-663-8472)	

## 제 목 : 「주택금융공사법」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(20.9.25) 통과

◇ 정무위원회는 금일(10:00)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「**한국주택금융공사법**」 **일부개정안**(3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)을 의결

- ①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**시가 → 공시가 9억원**으로 상향
- ② **주거용 오피스텔** 및 **주택일부에 세를 준 단독·다가구주택**의 가입허용
- ③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**배우자에게 자동 승계** [가입자 희망 시]
- ④ 주택연금 수급액 보호를 위한 **압류방지통장 도입**

### 1 주택연금이란?

■ **주택연금**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**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**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.

□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(주거안정),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(소득보장)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'07년 도입된 이후,

- **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**하는 등 **노령층의 소득대안**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

□ 정부는 '19.11월 '주택연금 활성화방안'을 통해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은 확대하고, 보장성은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,

-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'**주택금융공사법**' **개정안을 발의**\*하여 정무위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
\* 김병욱의원<sup>민주</sup>, 박성중의원<sup>국힘</sup>, 심상정의원<sup>정의</sup> 개정안 발의 ⇨ 병합하여 정무위 통과

## 2 주택금융공사법 정무위 통과안 주요 내용

### ①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(시가 12~13억원 수준)으로 상향됩니다.

- 물가·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**약 12만 가구**(‘19년말 기준)도 주택연금을 통해 **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**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다만,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, **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(60세 기준 월 187만원)**으로 제한하여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

### ②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
- 그동안 ‘주택’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**약 4.6만 가구**(‘19년말 기준)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③ 가입자 희망시, **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** 가능해집니다.

- 이를 통해 가입자가 희망하면,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**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**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합니다.

※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

- 또한, 주택 일부(예: 방 한 개)에 **전세를 준 단독·다가구 주택의 가입** 및 **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**도 가능해집니다.

### ④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**압류방지통장이 도입**됩니다.

- 주택연금 지급액 중 ‘민사집행법’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(월 185만원)까지는 **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**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, **연금수급권을 보호**합니다.

□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,

○ 국무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\*입니다.

\* ‘공시가격 9억원’까지 가격상한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  
‘신탁방식 주택연금’ 및 ‘압류방지통장’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